

# ‘새내기’를 위한 안내서 활기

## ‘교양’에서부터 구체적인 생활지침까지 다양

입학철을 맞은 서점가에선 낯선 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각종 대학생활 안내서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이 된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씩씩한 지적 욕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막막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황금같은’ 청년기를 보다 알차게 꾸릴 수 있는 자상한 조언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관련 책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대학생활을 위한 안내서는 20여종. 이들 책의 내용은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와 지성인으로서 쌓아야 할 교양에 초점을 둔 에세이 성격의 책에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이나 서클, 강의들은 요령 등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설명하는 안내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 ‘학습방법의 학습서’

최근에는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소나 교양교육위원회 같은 곳에서 직접 펴낸 대학생활 가이드북들이 눈에 많이 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펴낸 2권의 책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들려준다. ‘대학생을 위한 학습방법의 학습서’란 부제를 붙인 「대학에서의 공부 어떻게 다르나」(서울대출판부)는 책상에서 외우는 식의 공부방법을 벗어나는 학습요령에 초점을 둔다. 이를테면 “강의실에 갈 때는 질문사항을, 나올 때는 해답을 얻고 나와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땐 책을 뒤지거나 도서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든가, 열린사고를 위한 ‘3A 경정법’으로 태도(Attitude) 주의(Attention) 적응(Adjust-

ment)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선 심리학 원리를 이용하는 독특한 체제도 갖췄다.

역시 학생생활연구소가 서울대 신입교수 7명의 체험기를 엮은 「젊음으로 도전한 학문의 길」(서울대출판부)은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상아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겪었던 학문적 방향이나 학과선택의 갈등을 들려주고 있다.

연세대 교양교육위원회가 펴낸 「보람있는 대학생활」(연세대출판부)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의 실천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충고를 담았고, 외국의 대학생활에 대한 비교예시와 함께 졸업후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도 실고 있다.

대출판부의 책들이 ‘공부’와 ‘학습’에 비중을 두었다면 다른 안내서들은 비학문분야의 대학생활까지 상세하게 다룬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내기들의 일년나기」(임상규 외 지음, 대동)는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별 학사일정과 학생회 행사에 맞춘 독특한 방식으로 새내기들의 막연함을 덜어준다. 3월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란 주제를, 5월엔 ‘대동제’나 ‘학생운동의 역사’에 관해, 7월엔 농활이나 ‘아르바이트’의 주제를 놓고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폭넓은 교양을 나눈다.

또한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마스다 시로 지음, 이영매 옮김, 백산서당)는 대학에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서양 학문과 문화의 차이



새나기를 위한 각종 노하우를 담은 지침서들이 서점에 쏟아지고 있다.

와 공통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라이프」(E.A. 피어스 지음, 김중환 옮김, 자유지성사)는 내실있는 캠퍼스생활을 위한 강의 요령, 독서, 논문쓰기, 스포츠, 우정 등 학업과 취미생활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안내한다.

### 대학생활 자체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 필요

이밖에 학점 잘 따기 노하우에서 미팅 즐기 기까지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재미있는 대학생활」(허미선 외 지음, 이목)이나 「후회없는 대학생활」 「대학생활 소프트」 「우리들의 대학」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등도 각각 특징적인 대학생활 지침을 들려준다.

최근의 출판흐름은 구체적인 ‘틈새’의 독자층을 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학생활 지침서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로, 예전의 관념적인 ‘인생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경향이 다.

하지만 “대학 재학 시절이 인생에 있어 정신적 성숙을 위한 도약기라고 생각할 때 지나친 요령 위주의 실용서들에 의존해선 안될 것”이라는 한 선배대학생의 시각은 ‘새내기’들이 귀기울여야 할 점이다.

또 “새롭게 접하는 생활 하나하나에 지나친 두려움을 갖기보다 대학생활 자체를 거시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골라 읽어야 할 것”이라는 대학교수들의 충고 또한 귀담아 들을 일이다.

—배은희 기자

1994 한국출판문화상  
아동부문 출판상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 영역별 연령별

# 아너더

## 유아교육동화 링링링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① MBC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②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③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④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⑤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별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